

제 18 호

(1998. 12. 10)

發行人  
趙鏞樂

# 淳昌趙氏宗報

淳昌趙氏大宗會

137-020 서울·瑞草區 瑞草洞 1712-2  
東龍빌딩 503號

連絡處

會長 593-5353, 8383

FAX 593-8383

送金口座

국민은행 079-21-0442-691 조올락

농협 013-02-136312 조올락

우체국 013-284-0008954 조올락



趙炳舜 顧問

## 趙炳舜 顧問의 生涯

大宗會長 趙鏞樂

대중회고문 趙炳舜翁(76세)은 평택과 종원으로 서 1948. 7.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수료하고 건설회사인 태성개발(주)대표이사, 성암(誠庵)고서 박물관설립, 세계박물관협회회원, 한국서지학회회장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古書委員)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趙고문은 1974. 11. 17.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 태성(太星)빌딩 6층에 그분의 호(號)를 딴 성암고서(誠庵古書)박물관을 개설하여 국보급·보물급 고서적들을 전시하고 있다.

소장품중에는 5백70년전 조선조 초기에 중국 역사를 기록한 북사상절(北史詳節) 등 국보 3점, 고려시대 삼국사기 고려판(三國史記 高麗板) 등 보물 15점이 끼어 있다. 특히 국보인 대방광불화 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은 9백여년전 고려시대의 글과 그림이 있는 불경의 목판인쇄본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인데 趙고문만이 갖고 있다고 한다. 또 6백20년전 고려말때의 금강경(金剛經), 5백70여년전 조선조 초기의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과 당시 과거(科擧)시험 참고서와 같은 신간류역거삼장문선(新刊類歷舉三場文選) 등은 금속활자본으로 희귀한 것들이다.

조고문이 고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30여년전인 40세때쯤. 당시 송추에서 서산공(西山公) 시제를 지낼 때 집안어른들로부터 22대 선조 문정공조연(文貞公趙廉)이란 분이 고려 충목왕때 밀직부사(密直副司)를 지낸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서 동문선(東文選)이란 책에 그분의 글이 실려 있다는 전설같은 얘기를 들은 때 부터이다.

동문선은 조선조 성종때 신라, 고려, 조선조 초기에 이르는 1천여년 동안의 뛰어난 문장가 75명의 시문을 골라 수록해 놓은 중요한 책. 조선 성종(1478년)때 1백54권 한세트를 초안본(草案本)으로 발간한 뒤 중종때 두 번째 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고문은 22대 할아버지의 글을 읽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껴서 그 책을 찾아나섰다. 국립도서관 등 도서관마다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건설업을 하던 회사마저 그만둔 조고문은 서울 인사동, 청계천 일대, 대구, 부산 등 고서점가와 휴지수집소 그리고 세검정, 안성 등지의 종이 공장 등 전국을 헤맸다.

조고문은 이런 노력을 8년간이나 계속했으나 허탕을 쳤다. 그러던중 지난 70년 고서적 중간상인을 통해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사는 한의사가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으나 그 한의사의 완강한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한의사는 조상께서 물려준 것이라 절대로 팔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굽히지 않았 습니다. 중간 상인을 통해 1년동안 끈질기게 졸랐 지요 나중 집념에 감복했다며 팔더군요 책을 손 에 쥔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22대 할아버지의 글은 관직에 있던 친구를 원나라로 유학보내면서 지은 <이별의 시>였습니다』

그 책은 증중대 재발간된 동문선(東文選) 제4 권으로 시의 제목은 송민중옥생원 동근서환(送閔仲玉生員 東觀西還). 조고문은 선조의 글이 실 린 동문선을 찾아 다니면서 조상들의 일이 담긴 고서적들의 가치와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고 서들이 휴지값으로 팔려 종이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때부터 닦치는대로 고서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고서적을 수집하면서 그가 겪은 일화도 많다. 1975년경의 일이다. 경북 봉화(奉化)에 사는 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간된 천자문(千字文) 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4백년전 임진왜란 때 한석봉이 쓴 것이었다.

천자문은 한문마다 한글로 토를 달아놓아 한글 변천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중개상을 통해 달라는대로 돈을 주겠으니 팔자고 했지만 중 개상도 다섯 차례나 허탕을 쳤다. 화가 난 조고문 은 봉화까지 쫓아갔다가 기절당했다.

그후 조고문은 7년동안 계속해서 설득했으나 끝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사진만이라도 찍게 해달라고 간청해 현재 사진으로만 보관하고 있다. 조고문은 고서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고려와 이조시대의 귀중한 문헌 등의 문화재수집관리, 고 려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발견 등을 계기로 하 는 한국사연구. 그로인한 국민훈장 목련장의 수상 등 정통역사학자를 능가하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 바 다음호부터는 중요 일간신문들이 검증확인하고 있는 그분의 업적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 靑年會 조직강화

삼고파 趙炳天

제가 대중회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간곡한 뜻에 따라 지난 5월 청년부를 결성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 회장님과 이사회의 후원하에 6월 26일 상례리제에서 12명이 첫 모임을 가졌 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청년부의 모임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성의를 다하여 책임을 나누자고 결의하고 9월 5일 10여명이 다시 모여 회칙 초안작성, 준비위원 위촉, 앞으로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뜻을 모았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유적지 답사, 회원간의 애경사 참석, 도시와 농촌회원간의 상호협력, 장 학사업 등 우리의 당면문제에 대한 신뢰깊은 대화를 교환하였고 특히 종친간의 친목과 심 도있는 협력의 모임으로 발전시키고자 서로 힘주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청년회의 조직이 지연된점 용서하시고 성대한 청년부가 발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무릎꿇 어 앙망하는 바입니다.

淸安派先祖들의 壇所設置



淸安派(淸安派)의 비조인 17세 휘 해(垓)는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추증된 참의공 덕유(德柔)의 셋째 아드님으로서 큰형인 휘 기(圻)는 공신공으로 칠충사(七忠祠)에 제향되어 있고 중형 휘 식(埴)은 첨지 중추부사를 역임한 이안파(利安派)의 비조(鼻祖)이시며 아들 제운(濟運)은 괴산군 청안면 원서리에 자리잡고 살게되어서 그 일족을 청안파라 하게 되었다.

淸안파의 증원은 총17명으로서 번창하지 못한 편이며 북이면과 괴산, 제천, 안산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종사에 관심있는 27세 태복(泰復)이 1998년 2월 23일 자비와 일부 증원의 협찬금을 합하여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행정 뒷산에 자파의 비조인 휘 해(垓)의 석비(石碑)를 세우고 18세 제운을 비롯한 24세까지의 선조 13위의 단산소를 설단하고 표석을 건립하여淸안파의 성지(聖地)로 만들고 모든 증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제례를 거행하였으며 금년 가을부터는 전조상들에게 시향을 올리게 되어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다.

副會長(기성파) 趙昌善 提供

特 輯

遺蹟探訪

⑤

申敬장군의 머느리 淳昌趙氏  
(貞敬夫人)의 신도비 발견

<평택과 趙炳禹 提供>



대가족제로로부터 핵가족제로로 옮겨가는 현대에 있어서도 가능한 조상을 알아보고 그 뿌리를 찾는 것은 인류사의 한 흐름이라 생각한다.

전체인구의 25% 가까이 살고있는 수도 서울에서 淳昌趙氏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고 어쩌다가 호남의 순창 또는 옥천(玉川)조씨를 만나고서도 조상이 같다는 확증을 찾지 못하여 애석함을 금치 못할때가 많았는데 1965년경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동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관내 망우동 산69번지에서 큰거북 위에 세워진 대형 신도비(神道碑)에서 「領議政 平城府院君 贈諡忠翼申公 景禎之墓」란 글귀 옆에 「貞敬夫人 淳昌趙氏 附左」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족보를 찾아보니 여주파 16세손인 정현(廷顯)

할아버지의 사위가 평산신씨의 신경진(申景禎)임을 발견하고 그의 부인이 바로 위 신도비중의 「정경부인 순창조씨」임을 알게 되었다.

평산신씨족보에 의하면 申景禎은 임진왜란때 충주 탄금대에서 왜병의 공격에 대하여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싸우다 전사한 신립(申稜)장군의 장자로서 이씨조선 500년간에 유일하게 무인 출신으로 영의정을 지낸분이며 그의 부인인 「정경부인 순창조씨」는 휘 “廷顯”의 따님으로서 제 18세 만한당 수익(壽益)공의 고모이시다.

위 신도비에 의하면 정경부인 순창조씨는 첨지 廷顯의 딸로서 선조6년(1573년)에 태어나 선조 26년 2월 29일 작고하니 2남2녀를 두었다.

장남 焜은 형조판서로서 정사공신 평홍군에 봉해졌고 차남 焄는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며 딸은 별제 유우엽(柳于燁)과 진사 박천구(朴天球)에게 출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一般會費納入現況

조천용(평택)	₩	100,000
조근호(평택)	₩	30,000
조연상(여주)	₩	20,000
조태형(지곡)	₩	5,000
조 남(팔송파)	₩	20,000
팔송파	₩	30,000
조영만	₩	20,000
췌용식	₩	10,000
조원식	₩	10,000
조태홍	₩	10,000

趙鈺台願問(괴산종친회총손)逝去

본회의 조영태(趙鈺台)고문께서 1998. 10. 21. 향년 72세로 서거하여 괴산군 불정면 삼빙리 안촌(安村)선 영에 안장되었다. 조고문은 피세공 휘 신(神)할아버지를 정점으로 하는 괴산종친회의 직계종손(安村派)으로서 고향에서 조상의 유산과 유적을 관리하여 오던중 질병으로 타계 하였다.

會員動靜

- 趙用圭교장 국민훈장 수상  
조용규(예천)교장이 1998년 8월 31일 정년 퇴임하였는바 2세 교육에 헌신봉사한 그간의 공로로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 평택파 趙鏞完은 서울대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후 건교부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년 6월 1일 동공사 기술본부장으로 승진.
- 평택파의 趙天鏞시장은 1985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동신정공(주)를 설립, 판금기공업에 종사하면서 매년 30%씩의 초인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컴퓨터에 의한 첨단전자동 토털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제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신속하게 자동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지난 3월 18일 제25회 상공인의 날 경기도 지사상을 받았다.
- 趙承圭(예천파 대표 대의원 : 前대총회 고문 趙光烈子) 1998년 11월 별세

基金贊助金納入現況

조용락(평택)	₩	1,000,000
조창선(기성)	₩	2,500,000
조태형(송현)	₩	1,000,000
누계	₩	4,500,000